

은행/증권

Analyst 전배승

02. 3779-8957

junbs @etrade.co.kr

증권

증시주변자금 긍정적 흐름 지속

Overweight

거래대금 증가와 높아진 금리 민감도

거래대금 증가, 신용잔고 확대 등 업황지표 호조세 지속. 주수익원 회복과 운용이익 개선으로 1분기 양호한 실적 예상. 풍부한 유동성과 높아진 금리민감도는 증시주변자금 흐름 및 중위험 금융상품 수요에 긍정적

거래대금 증가세 지속

전일 증권업지수는 5.99%상승(KOSPI +2.14%, 은행업 +3.73%)하며 3월 초 수준을 회복. 금리인하 이후의 유동성 확대 기대와 함께 거래대금 증가 및 운용이익 호조로 양호한 1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이 증권주 상승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

3월 중 일평균 거래대금은 7.9조원을 기록해 상승추세를 이어가고 있음('14.4Q: 6.5조원, '15.1~2월 7.3조원). 특히 3월에는 코스닥 거래대금 정체 불구 지수상승(시총증가) 영향으로 KOSPI 거래대금이 2012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인 5.0조원까지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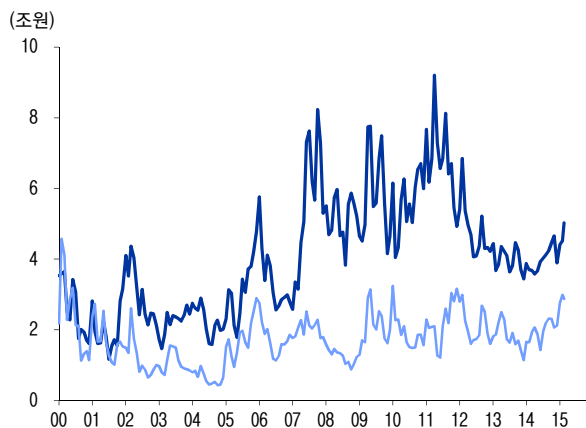
연초 이후 시장금리(국고채 3년)는 23bp 하락해 지난 4분기(-20bp, 기말기준) 대비 하락 폭이 확대됨. 채권운용이익 개선이 예상되며,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여전히 스프레드가 12bp에 불과해 추가적인 금리인하 기대감이 상존하는 상황

우호적 유동성 여건과 금리 민감도 상승

8% 수준의 M2 증가율이 유지되고 있으며, 은행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이 확대되고 있어 유동성 여건은 증권업종에 우호적. 이는 거래대금을 포함한 증시주변자금 흐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. 또한 결제성예금, MMF 등 단기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다,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정기예금의 매력도 저하로 ELS 등 중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역시 견조하게 유지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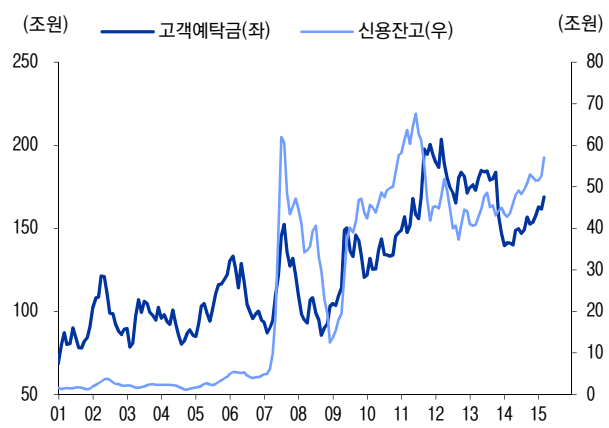
우리는 2015년 증권업종에 대해 2014년 이익회복의 연장흐름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, 운용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하반기 보다는 상반기 중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음. 커버리지 대형증권사 기준 평균 주가상승여력은 약 20% 수준임

그림1 거래대금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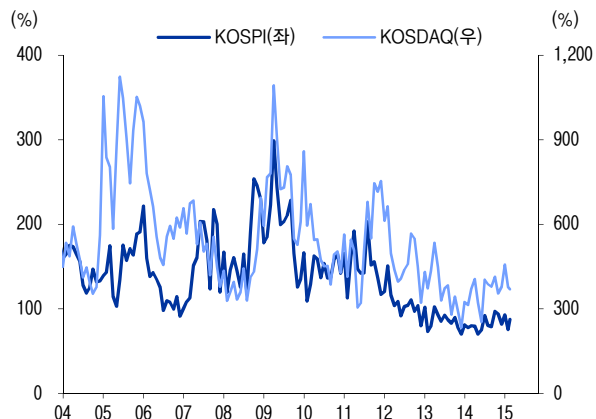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거래소

그림2 고객예탁금과 신용융자 잔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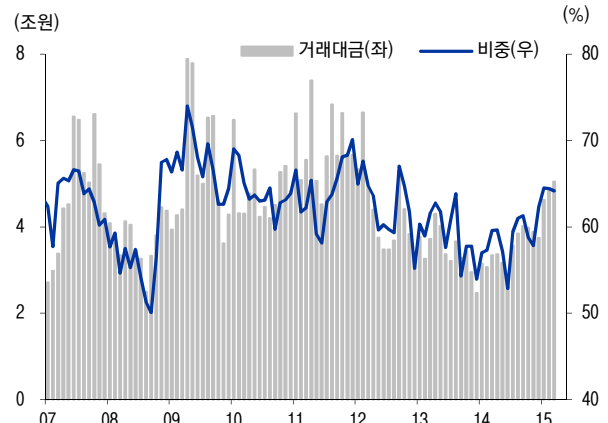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거래소

그림3 KOSPI, KOSDAQ 회전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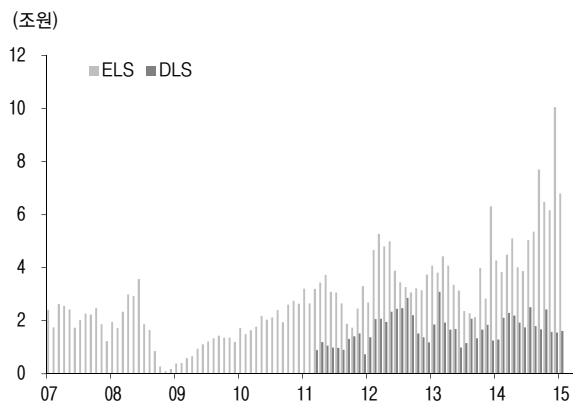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거래소

그림4 개인 매매비중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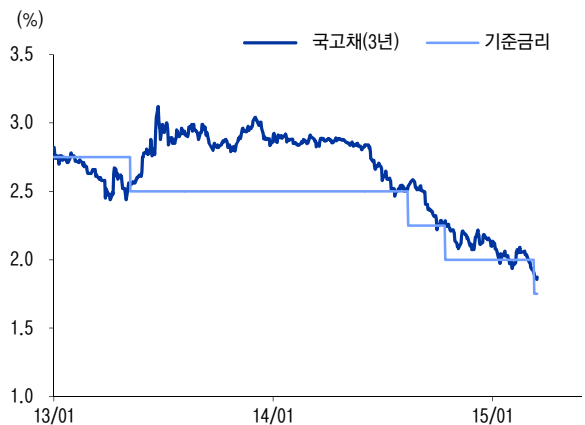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거래소

그림5 ELS, DLS 발행액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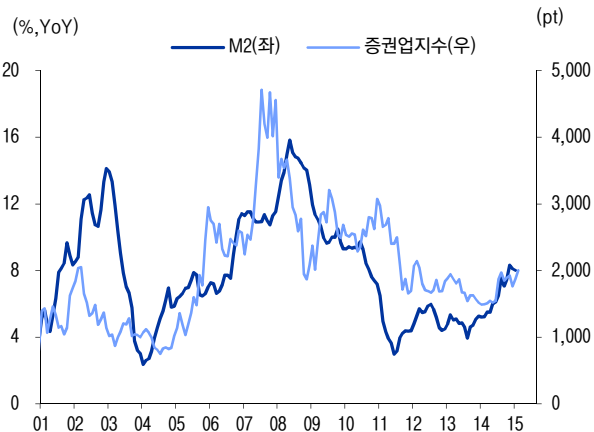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투자협회

그림6 국고채3년 금리와 기준금리 추이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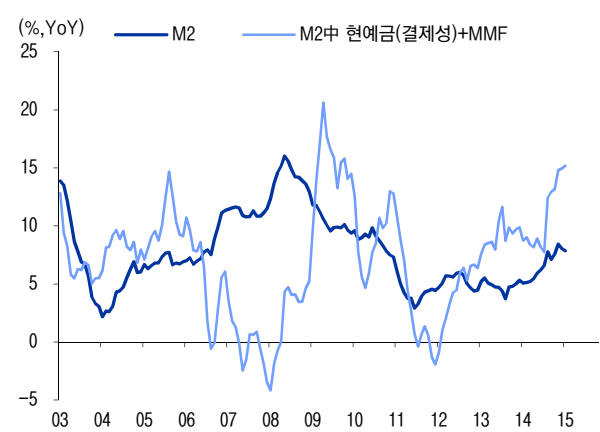
자료: 한국은행

그림7 M2증가율과 증권업지수



자료: 한국은행

그림8 M2증가율과 M2 내 단기자금 증가율



자료: 한국은행

Compliance Notice

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(작성자: 전배승)

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될 수 없습니다..

-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.

투자등급 및 적용 기준

구분	투자등급 guide line (투자기간 6~12개월)	투자등급	적용기준 (향후 12개월)	비고
Sector (업종)	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Overweight (비중확대) Neutral (중립) Underweight (비중축소)		
Company (기업)	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3 단계	Buy (매수) Hold (보유) Sell (매도) N.R. (Not Rated)	20% 이상 기대 -20% ~ 20% 기대 -20% 이하 기대 등급보류	2015 년 2 월 2 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4 단계 (Strong Buy / Buy / Marketperform / Sell)에서 3 단계 (Buy / Hold / Sell)로 변경